

공공의료 확충과 원격의료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체계로서 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의료 공급량과 이용량은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의료에 대한 공공의료의 상대적인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즉 보장성 강화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에 의료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은 공공의료대상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은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공공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국립보건의료정책기관(질병관리본부, 국가중앙의료원 등)의 육성, 국가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 재정비 및 보강, 수평적 및 수직적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성 제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현대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체계 구축, e-Health 기반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병상지원 수급의 적정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국가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필수 보건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전염병 및 응급의료 인프라 및 대응체계 선진화,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유의한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전문인력 배치의

어려움,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의 어려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공공투자 효과의 확보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여전히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의 한계점을 정보통신기술에 의거한 원격의료방식으로 지원 또는 보충하는 것은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은 필요한 건강정보를 편리하게 발견하게 하고, 의사소통 및 협업(collaboration)의 품질과 범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공부문 보건의료서비스에 응용되어 인력 및 시설의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개선에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원격의료는 농어촌, 도서벽지 등 지리적인 의료취약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의 대상에 대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원격의료의 기

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즉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의료보호환자를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은 원거리의 전문의료기관이나 저렴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원격의료는 농어촌, 도서벽지 등 지리적인 의료취약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의 대상에 대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직접대면방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공공의료부문에서의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원격의료는 편리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며 보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여러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연계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격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들

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전문 의 혹은 노인전문병원의 장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들을 연계하는 원격의료의 유용할 수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에 입소해 있을 때 환자의 행동을 원격으로 관찰한다면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환자를 관찰하지 않더라도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는 환자가 교도소와 같은 폐쇄된 수용시설에 있을 때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관리도 원격의료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초진 이후 재진의 경우에 매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방식으로 필

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의 대부분은 일차의료이며 이러한 일차의료를 원격의료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많은 편익이 있을 수 있다. 일차적인 진료서비스를 원격의료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 접근성의 제고, 의료의 질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원격의료는 노르웨이,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지리적 및 사회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 및 저개발국가들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및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기반 환경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관 및 인력들은 보다 성공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